

2012 삼국유사 골든벨 예선문제 (50문항)

1. 삼국유사의 첫 부분에는 “위서에 이르기를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라는 이가 있어 도움을 이곳으로 정하고 나라를 창건하여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에서 다보탑과 석가탑을 만든 백제의 석공 이름과도 같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① 아사달 ② 비류성 ③ 사랑부 ④ 졸본성
2. 다음에 나오는 삼국유사의 여러 편 가운데 가장 먼저 편찬된 것은 무엇일까요?
 ① 왕력 ② 기이 ③ 탐상 ④ 신주
3.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무덤은 머리와 사지를 따로 장사 지냈기에 오릉이라 불립니다. 이 오릉은 장사지낼 때 일어난 기이한 일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① 현릉 ② 패릉 ③ 사릉 ④ 공릉
4. 고구려의 점쟁이 추남은 죽으면서 다음 생에는 적국의 장수로 태어나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추남의 환생으로 불리는 신라의 장수는 누구일까요?
 ① 계백 ② 김유신 ③ 사다함 ④ 김품석
5. 다음 중 일연 스님이 승려로서 머문 사찰이 아닌 곳은?
 ① 용연사 ② 선월사 ③ 인홍사 ④ 고선사
6. 박혁거세의 비 알영은 처음에 입술이 닭부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욕을 시키니 부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 곳은 어디일까요?
 ① 엄수 ② 알천 ③ 복천 ④ 서천
7. 이 사람은 진지왕의 귀신이 도화녀를 임신하게 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귀신들도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귀신을 쫓고자 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시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비형랑 ② 처용 ③ 밀본 ④ 차득공
8. 다음은 신라 어느 임금 때의 일일까요?
 - 처음으로 도술가를 지었다.
 - 쟁기와 보습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 얼음창고와 수레를 만들었다.
 ① 유리왕 ② 남해왕 ③ 탈해왕 ④ 노례왕
9. 삼국유사 효선 편에 맨 먼저 나오는 인물로 홀로 남은 어머니를 두고 출가하는 모습에서 일연스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승려는 누구입니까?
 ① 엄장 ② 진정 ③ 노힐부득 ④ 양지
10. 경덕왕은 망덕사 탑의 낙성회에서 비구승으로 변신한 진신부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덕왕은 이 일을 기념하여 두 군데에 사찰을 짓습니다. 이때 지은 두 사찰의 이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① 영취사-영묘사 ② 석가사-불무사 ③ 창림사-호원사 ④ 구원사-홍륜사

11. 귀산과 추항에게 세속오계를 내린 원광법사의 원래 성씨는 무엇일까요?
 ① 석씨 ② 설씨 ③ 박씨 ④ 김씨
12. 삼국통일 후에 무열왕이 병기와 투구를 이 골짜기 가운데 갈무리하였기에 이름이 지어진 암곡촌에 있는 사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장무사 ② 무위사 ③ 담엄사 ④ 무장사
13. 경주 남산 남쪽 고위산에 있는 사찰로 중국 사신 악봉귀가 이 절이 파괴되면 얼마 못 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찰로 지금은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① 감산사 ② 가서갑사 ③ 천룡사 ④ 용장사
14.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법사는 중국에서 돌아오며 부처님의 사리를 100개 가지고 옵니다. 법사는 이 사리를 세 군데에 나누어 모십니다. 다음 중 자장법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 아닌 한 군데는 어디일까요?
 ① 태화탑 ② 황룡사탑 ③ 분황사탑 ④ 통도사 계단
15. 고려후예종 때 사신이 송나라에 가서 몰래 이것을 구해와 전각에 모시고 왕이 친히 예를 올렸는데 몽고란 때 강화로 피난을 가면서 미처 챙기지 못해 잃어버려서 큰 소동을 빚었다가 다시 되찾은 일이 삼국유사 탑상편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① 만파식적 ② 부처님의 어금니 ③ 부처님의 금란가사 ④ 진평왕의 옥대
16. 신라 말엽에 최은함은 자식이 없어 중생사 보살화상께 기도하여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때 후백제 견훤이 습격하여 피난가면서 부처님께 아이를 맡기고 갔다가 보름 후에 와보니 아이가 무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커서 고려의 유학자가 되어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① 최승로 ② 최언위 ③ 최제안 ④ 최이
17. 경덕왕이 당나라 대종을 위해 산 모양을 만들어 비단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부처님을 모신 작품으로 오늘날로 치면 산의 미니어처에 해당하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만어산 ② 사불산 ③ 만만파파식적 ④ 만불산
18. 고구려 평양성에 있던 사찰로 팔각 7층탑이 있었던 영탑사를 세운 이는 누구입니까?
 ① 보장왕 ② 보덕 ③ 순도 ④ 연개소문
19. 고구려의 성왕은 이 성에 이르러 신기한 현상을 보고 불교를 믿게 되어 7층 목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은 어디일까요?
 ① 요동성 ② 안시성 ③ 온달산성 ④ 국내성
20. 후삼국시대 말 왕건과 견훤은 여러 차례 경상도 지역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왕건은 대구 공산전투에서 신숭겸과 김락을 잃게 됩니다. 또 의성부의 이 사람도 견훤에 맞서 싸우다 죽자 태조가 “내 오른손을 잃었다”고 한탄하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 장수는 누구입니까?
 ① 김웅렬 ② 신검 ③ 홍술 ④ 김약
21. 견훤은 원래 신라땅 가은현 사람이었습니다.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는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스스로 장군이라 칭했는데요. 견훤의 원래 성은 무엇이었을까요?
 ① 김씨 ② 이씨 ③ 부여씨 ④ 해씨

22. 백제는 재상을 신탁에 의해 뽑았다고 합니다. 호암사라는 절의 암자에 재상의 후보들의 이름을 적은 상자를 두고 얼마 후에 그 위에 인(印)자가 찍힌 흔적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뽑았다고 하는데요. 이 암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보덕암 ② 용암 ③ 사인암 ④ 정사암
23. 신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어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침범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황룡사의 9층탑과 장륙존상, 그리고 진평왕이 하늘에서 받았다는 이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① 피리 ② 옥대 ③ 칠지도 ④ 금관
24. 성덕왕 대 순정공의 아내는 미모가 빼어나서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들까지 탐을 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는 이 부인에게 노인이 꽃을 꺾어주었다는 이야기와 동해 용이 납치를 해 갔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선묘 ② 선도성모 ③ 수로부인 ④ 알영부인
25. 신라의 신무왕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민애왕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왕의 장인이 될 것을 약속받고 민애왕을 죽이고 신무왕을 왕위에 올렸지만 결국 신무왕에게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당대 최고의 협객으로 해상왕으로 불리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신충 ② 장보고 ③ 낭지 ④ 선율
26. 삼국유사에 있는 이야기들은 현대의 소설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춘원 이광수가 쓴 이 소설인데요, 조신과 김혼의 딸이 사랑의 도피를 하지만 세상의 온갖 괴로움을 겪은 후, 깨달음을 얻었다는 설화를 모티프로 한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① 무정 ② 사랑 ③ 꿈 ④ 유정
27. 이곳은 지금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던 포구입니다. 신라 때 국제 무역항의 하나였고, 처용설화의 배경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해 용을 위해 제사를 지내자 구름이 걷혔다는 데서 유래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① 비류수 ② 하슬라 ③ 개운포 ④ 모슬포
28. 신라의 제 51대 왕으로 각간 위홍 등에게 정치를 맡기고 향락에 몰두하여 나라가 쇠망의 길에 접어들게 만들었다는 평을 받는 여왕입니다. 향가집 <삼대목>을 편찬하기도 했던 이 여왕은 누구일까요?
 ① 진성여왕 ② 진덕여왕 ③ 선덕여왕 ④ 소서노
29. 신라의 초대 혁거세 왕은 알에서 태어난 것으로 유명한데요, 알의 모양이 이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성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① 복주머니 ② 탑 ③ 불상 ④ 박(바가지)
30. 삼국유사에는 나라를 세운 왕들의 다양한 탄생 신화가 등장합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다음 인물 중 알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김수로 ② 김알지 ③ 고주몽 ④ 석탈해

31. 유치진이 처음으로 시도한 역사 소재 희곡의 제목은 <개골산>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나중에 주인공들의 이름을 따서 “()와(과) 낙랑공주”라고 바꾸었다가, 다시 이 사람의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자로 개골산에 들어가서 삼베옷을 입고 풀만 먹으며 생을 마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2. 삼국유사에는 경애왕이 이곳에서 술판을 벌이다 견훤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곳이 남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신라 멸망의 현장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33. 이 노래는 공무도하가, 황조가와 더불어 고대 가요로 분류되고 있는 노래입니다. 가야의 김수로 왕을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불렀다고 전해지는데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로 시작되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34. 아래자형 설화는 전국적으로 여러 형태가 있는데 대개는 ‘밤마다 알 수 없는 사내가 처녀의 방을 찾아와 동침하고 가고, 처녀는 괴물의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 훗날 비범한 인물이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이 인물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주 사람으로 신라를 멸망시켰으며, 지령이의 아들로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5. 삼국유사에서 일연은 이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본래 신라의 왕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제 나라에 원한을 품고 조상의 영정에 칼질까지 했으니 그 못된 성품을 알 만하다. 그 때문에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버림받았다.”
철원을 중심으로 태봉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미륵이라고 칭했던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36. 신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눌지왕 때 목호자가 모래의 집에 숨어 있다가 공주를 치료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 사람이 생김새가 목호자와 같고 행적도 비슷하여, 목호자와 동일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7. “누가 내게 자루 빠진 도끼를 빌려 주려나. 내가 하늘 받칠 기둥을 찍어내리라.” 이것은 원효대사가 부르며 다녔다는 노래입니다. 이것에 대해 무열왕은 자루 빠진 도끼를 여자로, 하늘 받칠 기둥을 훌륭한 인물로 해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늘 받칠 기둥이 된 인물은 누구입니까?
38. 경덕왕 때 월명사가 쓴 ‘도술가’는 기이한 일로 나라 안이 발각 뒤집혔을 때, 인연 있는 승려가 궁덕을 드리면 재앙이 그친다고 하여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재앙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39.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사랑 이야기는 소설의 시작점으로 잡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호랑이 처녀는 자신의 발톱에 부상당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바르라고 합니다. 예전에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근거는 없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40. 신라 최고의 건축가인 김대성은 모량리의 한 과부에게서 태어났으나 일찍 죽고 김문량의 집에서 환생했다고 합니다. 김대성은 이승의 부모와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두 개의 사찰건축을 남깁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41. 일연스님은 깊은 효심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연스님의 늘 사모하고 존경했던 중국의 고승은 누구입니까? 이분을 사모하여 호를 목암이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42. 신라의 왕 중에는 직접 왕위에 올라 통치를 한 임금도 있지만 죽은 뒤에 왕으로 추봉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봉된 왕을 가리키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43. 백제의 시조 온조는 비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 남으로 내려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이때 처음 지은 국호, 즉 나라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44. 고구려에 불교를 처음으로 전한 순도는 전진의 승려였습니다. 소수림왕이 375년에 순도를 위해 건립한 사찰은 어디일까요?
45. 통일신라시대의 이 왕 때에 이르러 신라는 전성기를 누립니다. 성 안에 초가집이 한 채도 없고, 집의 처마와 담이 서로 닿아있으며, 노랫소리와 피리소리가 길에 가득하여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고 기록된 때는 어느 왕 때일까요?
46. 신라 진흥왕 때 원화 제도를 폐지한 후 좋은 집안의 남자들을 뽑아 화랑이라고 하고, 화랑의 우두머리를 임명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풍월주라고도 하는데요, 화랑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47. 삼국유사의 ‘효선’편에는 삼국사기 열전에 있는 이야기와 비슷한 효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처녀는 눈먼 어머니를 위해 곡식 30석에 남의 집살이를 하며 어머니를 봉양했다고 합니다. ‘심청전’의 근원설화가 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48. 김춘추의 아내이자 신문왕, 김인문의 어머니인 문희는 김유신의 동생입니다. 문희는 언니 보희의 꿈을 사서 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희가 원래 꿈에서 오줌을 누었더니 서라벌에 가득 찼다고 했는데, 이때 꿈에서 보희가 올라간 곳은 어디일까요?
49. 주몽은 부여에서 금와왕의 일곱 왕자들과 함께 자랐으나, 나중에 그들이 해치려 하자 그들을 피해 졸본 주에 와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주몽이라는 이름은 그가 가진 장기를 따서 부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50.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절은 어디일까요?
- 원효가 머물면서 <화엄경소>를 썼다.
 - 희명이라는 눈먼 아이의 어머니가 이 절의 천수대비에게 향가를 지어 바치자 아이가 눈을 뜨게 되었다.
 - 술거가 이 절의 관음보살상을 그렸다.